

수작업을 통한 한지 패션 소재 디자인 개발

The Design Development of Korean Paper Fashion Material through Manual Work

변미연 · 이인성*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박사과정 ·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Byun Mi-Yeon · Lee Inseong

Doctor's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 ·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

Abstract

Material is a factor for maximizing formative aspect among fashion design factors. Therefore, central axis of modern fashion is performing various trials for escaping from existing cloth and searching for artistic value.

Especially, Korean paper is a formative material, which is manufactured through traditional manual work in Korea. The material is used in various fields on the basis of its aesthetic feature. Especially, fashion field performs handcraft activity on the basis of mulberry pulp, which is a prime material of Korean paper. Because the activity can be reinterpreted by world designers, who want to find motive of fashion material in the third world, it is necessary to perform experimental study for developing expressive form on the basis of diversity of Korean paper material.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erform experimental study by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paper material in order to express formative feature.

The study purposes are as follows.

The first purpose is to reinterpret the theory through actual work of fiber formation using Korean paper in the current flow where art and design field are fused and compromised.

The second purpose is to suggest vision of material development on the basis of formative feature to fashion world focusing its eyesight to Asia and the third countries.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Korean paper has been evaluated as proper material for the fusion of design and art because of its handcraft feature, long-term preservation, heat insulation, absorption, diversity and eastern feature.

Second, the study performed various trials for artistic dress material by developing 12 Korean paper works and suggested the development of new material on the basis of formative feature of modern fashion industry.

Key Words : Fashion Material, Fiber Formation, Korean Paper, Manual Work

* Corresponding author: Lee Inseong
Tel: 02) 3277-4359, Fax: 02) 3277-2805
E-mail: 829104@hanmail.net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의의

현대 패션의 다양한 변화와 흐름은 디자인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있으며 '옷' 또한 예술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코드를 제시하게 되었다.

상업성 및 실용성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디자인과 작가의 내면세계의 표출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예술은 자칫 비상관관계로 인지할 수 있으나, 오프 꾸뛰르의 부활을 통한 독자적인 디자이너의 패션 작품을 통해 볼 때, 디자인으로써의 시각적 제시물이자 디자이너의 조형성을 반영한 예술 작품으로 인지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은 패션 디자이너들의 다양한 소재 개발을 통한 작품 활용에서 그 근본을 찾을 수가 있다. 소재는 패션 디자인 요소 중 조형적인 측면을 가장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요소로, 현대 패션의 중심축에서는 기존의 원단을 탈피하여 예술적 가치 추구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가지 소재 중 한지는 국내에서 전통적인 수작업으로 제작되고 있는 조형 소재로, 이들의 미적 특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소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패션 분야에서는 한지의 원료인 닥섬유를 근본으로 한 수공예 적인 작품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아시아 및 제 3세계로 패션 소재의 모티브를 찾고자 하는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에 의해 재해석 될 수 있는 부분이기때문에, 한지 소재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표현적 조형 개발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학계에서는 이와 관련된 학문의 연구가 지속되어 오고 있다. 한지 관련 선행연구로는 대표적으로 정연자(2004)의 한지 미적 특성을 중심으로 고찰한 연구와 심준영, 김용숙(2006)의 패션 액세서리 상품을 개발한 연구 등이 있으며, 조형 소재 표현에 관련된 연구로는 이연경(2006)의 자아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섬유 조형 표현과 서영민(2008)의 망을 통한 정서작용의 섬유 표현에 관한 연구가 있다.

그러나 이상의 선행연구 들은 예술과 디자인의 영역을 확고하게 나누어 진행되었던 연구였기에, 본 연구에서는 위의 흐름과는 달리 조형성 표현을 위한 한지 소재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예술과 디자인의 영역 융합이 절충되고 있는 현 시대적 흐름 속에 수작업을 통한 한지 패션 소재를 디자인하여, 한지 특성에 따른 수작업의 방법을 재해석하고자 함이다.

둘째, 아시아 및 제 3국으로의 시각이 집중되고 있는 패션계에 조형성을 바탕으로 한 소재개발의 비전을 제시해 주고자 함이다.

2.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패션 소재 개발을 위한 섬유조형 표현에 관한 연구로, 수작업을 통한 한지 소재 개발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 연구 및 관련 보도 자료, 전문서 등을 통해 한지 소재 및 섬유 조형에 관한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프랑스 프리미에르비종과 미국 패션 산업계의 최대 정보 회사 WGSN(Worth Global Style Network)의 2009 F/W 패션 트렌드를 토대로 소재 개발을 위한 조형성을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셋째, 이론적 배경과 패션 트렌드를 토대로 실제 패션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12작품 개발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작품 제작 방법은 닥섬유를 기본 재료로, 염색과 오브제의 합성을 통해 이론적 배경에서 고찰한 한지 소재의 특성을 보존 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한지의 정의 및 역사

'닥종이'로 통칭되는 한지(韓紙)는 닥나무의 닥피를 주 원료로 하여 만들어진 수초지를 말한다(이승철, 2002).

국내에 종이의 사용과 그 제조법이 언제 전해졌는지에 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현재 전해지는 전래 초기의 종이 원료, 제법 등을 비교하여 고찰해 보았을 때, 「일본서기」에 610년 담징이 멧돌, 채색과 함께 일본에 종이를 전했다고 나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 우리나라의 제법은 같은 시기의 중국에서와 같이 멧돌을 사용하여 섬유를 잘게 갈아 종이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8세기 이후 고려 종이 「묘법연화경」과 신라 종이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섬유를 자르지 않고 두드려서 고해한 것으로 그 품질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보아 7세기 이전에 이미 상당한 기술을 축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래를 바탕으로, 고려 인종 23년에 왕명으로 닥나무 심기를 권장하였으며, 세조 12년에는 조지소를 만들어 종이 생산에 힘을 쏟았다. 조지소는 고종 19년 까지 존속하면서 인쇄술의 발달, 향교, 서원, 서당 등의 설치로

급증하는 종이의 수요를 감당하였다(이서원, 1998).

1882년 조지소가 철폐되고 1884년 양지 제조 초지기가 마포 양화진에 일본으로부터 도입되었으며 고종 39년(1903년) 용산에 전원국조지소가 설치되어 양지를 생산함에 따라 우수한 품질의 한지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한경희, 노은희, 2005).

이러한 역사를 바탕으로 현대에 이르러 닥 재배의 장려 및 생산 조직의 정비, 품질과 품종의 개량연구와 기술연구 등으로 인해 기계적 생산 방식의 한지가 상용화되고 있다.

2. 한지의 특성

한지는 그 제조과정과 다나무 성질의 특유성으로 인해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4가지의 특성으로 고찰해 볼 수 있다.

1) 보존성

수 백년의 시간성을 지닌 과거의 책이나 그림들이 현재에 문화재로 보호받고 있음을 살펴 볼 때, 한지는 장기

보존성을 지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문화 예술품의 전송 및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예술적 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시간적인 특성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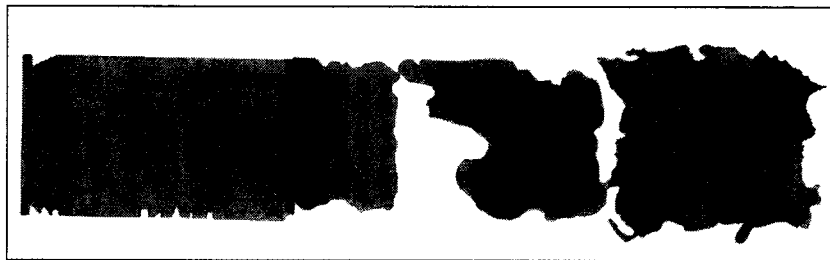
2) 보온성과 통기성

한지는 섬유 사이에 적당한 공간을 가지고 있어 창문에 발라 두면 자연스러운 공기의 소통으로 온도와 습도의 조절 및 환기가 이루어지기에 주거 생활에 널리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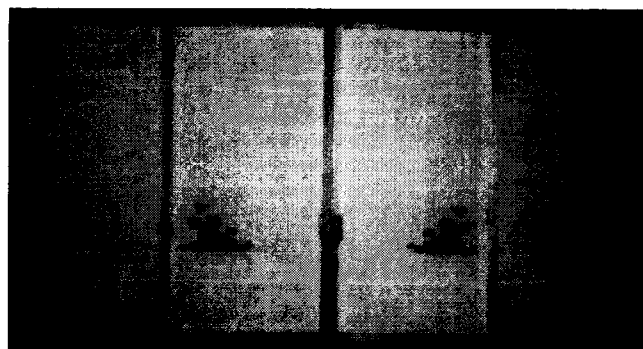
이러한 한지의 통기성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배면적 기법을 사용한 작품들-대표적인 예로 한지와 수목화가 결합된 작품-이 제작되기도 하였다. 배면성이란 재료의 물리적인 성격, 즉 한지의 통기적인 구조와 수목의 운동성향, 이동방향을 이용한 기법이다. 다시 말해 수목화는 비수용성인 먹과 수용성인 염료나 광물질 안료 같은 작은 입자가 종이의 셀룰로오스 섬유 사이의 모세혈관을 따라 스며들면서 나타나는 선염법을 이용한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수정, 채선미, 2004).

3) 흡수성

한지는 흡수성이 매우 뛰어나 물과 만나면 필프화되는 경향이 단점으로 지적되는 경우도 있으나, 소량의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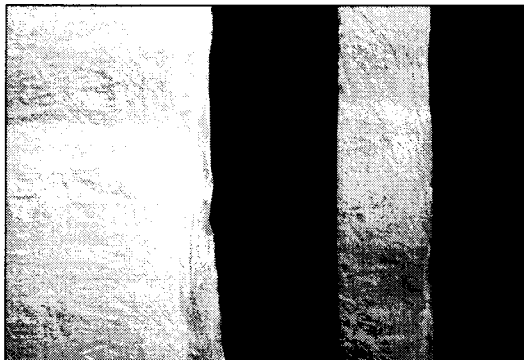
[그림 1] 무구정광대다라니경
(www.cha.go.kr)



[그림 2] 전통 한지 창살
(직접 촬영)



[그림 3] 한지의 번지는 성질
(직접 촬영)



[그림 4] 가공을 통한 다양한 색의 한지
(직접 촬영)

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한지의 성질을 먹, 물감, 싸인펜 등 여러 가지 재료를 통해 번지는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선화, 2002).

또한 물을 통해 닥섬유 자체끼리의 엉켜 붙는 성질을 이용하여 평면적이 아닌 입체적인 조형물의 제작에도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4) 다양성

한지는 부드럽고도 질긴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엮고, 구기고, 비트는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으며, 회화에서부터 종이 공예, 서예, 조소의 영역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와 혼합하여 다양한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이수정, 채선미, 2004).

또한 한지에 여러 가지 컬러나 오브제 등의 조합으로 여러 종류의 아이템이 생산됨에 따라 한지의 다양성에 관한 특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Ⅲ. 한지 패션 소재 작품 개발

이상의 한지 소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조합해 보았을 때, 한지는 패션 소재에 활용 할 수 있는 적합성을 지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수작업을 통해 한지의 조형성을 강조하여 심미적인 부분에서 예술적 감각을 표출할 수 있도록 소재 개발의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작품의 구성은 2009 F/W 패션 트렌드로 대두되고 있는 키워드를 토대로 자연성, 생명성, 이질성, 현대성 등의 4가지 분류를 기준으로 각각 3작품씩 총 12작품을 제시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성

2009 F/W 패션 트렌드의 자연성에 관한 키워드는 Ecological & Clean으로 순수한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동경으로 자연스러운 감각이 연출됨을 강조하였다.

1) 작품제작 의도 및 방법

한지의 깨끗하고 맑은 이미지는 자연과 흡사하며 특히 자연이 주는 모티브에 감각과 표현이 집중된다.

자연성을 기초로 한 본 작품들은 한지의 생성에 관한 부분에 의미를 두어 꽃과 나무를 형상화 하는 이미지를 표출하고자 하였다.

제작 방법으로는 닥섬유를 분쇄 한 뒤 꽃과 꽃잎, 한지 끈 등의 천연 오브제와 결합하여 후처리 과정을 진행하였다.


2) 작품 설명

작품 ①은 흙 위에 놓인 꽃을 형상화 한 것으로 두껍게 닥섬유를 쌓은 후 꽃의 잎과 줄기를 사실 그대로 올려 자연적인 시각적 편안함을 주고자 하였다. 생화 그대로의 느낌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위의 작품은 자연의 영원성 또한 드러내고자 하였다.

작품 ②는 흙 속 나무뿌리를 형상화 한 것으로 자연의 근본인 뿌리를 모티브 화 시켰으며 이를 토대로 패션의 시작점 또한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고자 하였다.

작품 ③은 바람 속에 흩날리는 꽃잎을 형상화 한 것으로 꽃잎 움직임의 율동에 따른 역동적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변화하는 자연과 이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심리상태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표 1> 자연성을 바탕으로 한 패션 트렌드 적용

트렌드 영역구분	트렌드 키워드	내용	이미지
컬러 & 모티브	Ecological & Clean	시대와 시즌을 아우르는 내추럴한 컬러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함. 변하지 않는 가치를 위해 다양한 브라운 톤들이 등장함. 플라워와 우드를 모티브로 한 다양한 이미지가 등장함.	

2. 생명성

2009 F/W 패션 트렌드의 생명성에 관한 키워드는 Eternity로 영원성을 바탕으로 한 클래식한 이미지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1) 작품제작 의도 및 방법

늘 한곳에 머무르는 시선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온 클래식 이미지는 컬러와의 결합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다준다.

영원성을 기초로 한 본 작품들은 한지의 클래식함, 즉 기본에 관한 부분에 의미를 두어 조화로운 이미지를 표출하고자 하였다.

제작 방법으로는 닥섬유를 분쇄 한 뒤 염료를 통한 염색작업을 시도하였으며, 끈 등의 유동성 오브제를 닥섬유로 고정 하여 후처리 작업을 진행하였다.

2) 작품 설명

작품 ④는 우주의 작은 행성을 형상화 한 것으로 행성 안의 작은 기와 흐름을 한지 끈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끈의 종류를 다르게 표현하여 여러 가지 우주 요소의 교차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작품 ⑤는 은하계의 달을 형상화 한 것으로 강한 빛을 내뿜는 달의 실제 표면 모습을 통해 인간의 호기심을 잠재우고, 그 누구에게나 기본의 본 모습이 다르지 않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형상화 한 것으로 푸르른 청록색과 깨끗한 흰색을 통해 앞으로 이 땅 위에서 추구 하고 싶은 인간의 희망과 기대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3. 이질성

2009 F/W 패션 트렌드의 이질성에 관한 키워드는

<표 2> 생명성을 바탕으로 한 패션 트렌드 적용

트렌드 영역구분	트렌드 키워드	내용	이미지
컬러 & 이미지	Eternity	빛바랜 감각의 컬러 레인지가 등장함. 미래적인 판타지 무드를 위해 얼음이나 유리와 같이 투명한 감각의 그린 파스텔이 등장함. 따뜻한 감각의 레트로 무드를 위해 베이지 브라운 톤의 컬러들이 제안됨.	

<표 3> 이질성을 바탕으로 한 패션 트렌드 적용

트렌드 영역구분	트렌드 키워드	내용	이미지
소재 & 형태	Energetic force	다소 거센 듯 자연에서도 아름다움과 풍요함을 발견해 조화를 이룸. 바로크적 볼륨감과 특이한 구조, 물체가 품고 있는 특성을 강화하면서 다양한 강도의 텍스처를 통해 형태의 다양함을 추구함.	

Energetic force로 넘치는 에너지를 통해 파워풀한 컬러의 이미지와 그라데이션의 동적인 형상을 표출하고자 하였다.

1) 작품제작 의도 및 방법

이질성이 가지고 있는 단어 자체로 기본의 상식이 아닌 Mix & Match 스타일의 표상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전개하였다.

소재와 형태 부분에 있어 다양하면서도 하나로 묶일 수 있는 요소는 바로 종이와 그를 감싸주는 다양한 오브제들이다.

제작 방법으로는 닥섬유를 분쇄 한 뒤 염료를 통한 염색작업을 시도하였으며, 펠트바늘을 통해 펠트 오브제 결합 및 이질성 오브제를 접착하여 후처리를 진행하였다.

2) 작품 설명

작품 ⑦은 평화와 전쟁을 형상화 한 것으로 현재 우리

들의 일상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작은 희노애락을 메인 테마인 평화와 전쟁이라는 카테고리 속으로 포함시켜 이질적인 양상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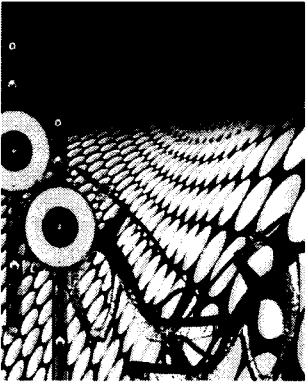
작품 ⑧은 선과 악을 형상화 한 것으로 선이 내재하고 있는 둥근 이미지를 곡선화 시키고 악이 내재하고 있는 거친 이미지를 직선화시켜 이질적인 양상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작품 ⑨는 삶과 죽음을 형상화 한 것으로 새로 태어나는 새 생명이나 죽음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삶이나, 사선으로 움직이는 같은 흐름을 통해 이질적인 양상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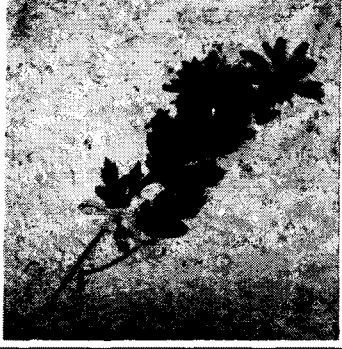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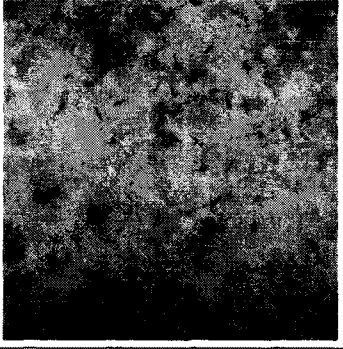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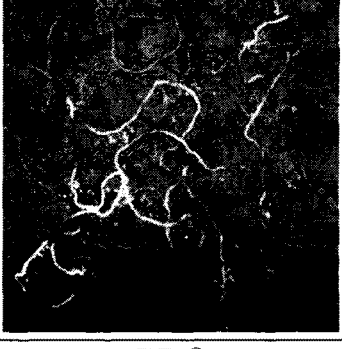





4. 현대성

2009 F/W 패션 트렌드의 현대성에 관한 키워드는 Stormy Dark로 어두우면서도 광택이 있는 강한 포인트를

<표 4> 현대성을 바탕으로 한 패션 트렌드 적용

트렌드 영역구분	트렌드 키워드	내용	이미지
소재 & 형태	Stormy Dark	모노톤(Monotonous) 감각으로 등장하는 골드 컬러 레인지가 제안. 불투명하고 컴팩트한 감각의 미드 다크 형태가 등장함. 중세적인 감각의 중후한 느낌을 현대적인 터치에 의해 표현됨.	

<표 5> 수작업을 통한 한지 소재 개발

자연성			
	작품 ①	작품 ②	작품 ③
	생명성		
작품 ④		작품 ⑤	작품 ⑥
이질성			
	작품 ⑦	작품 ⑧	작품 ⑨
	현대성		
작품 ⑩		작품 ⑪	작품 ⑫

통해 가운데로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형태적 이미지를 표출하고자 하였다.

1) 작품제작 의도 및 방법

현대성을 표현하기 위해 트렌드에서 제시 하고 있는 형태적 이미지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현대는 다양한 상상이 실현되는 세계로, 우리 주위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모던한 감각을 시각적으로 나타내었다.

제작 방법으로는 닥섬유 분쇄를 통해 레이스, 퍼 등의 오브제 결합 한 뒤 닥섬유로 고정된 후 비즈, 스팅글 등의 오브제를 접착하여 후처리를 진행하였다.

2) 작품 설명

작품 ⑩은 현대인들의 파티 문화를 형상화 한 것으로 현대 패션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퍼와 비즈의 오브제를 통해 일상의 삶에서 벗어난 일탈의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작품 ⑪은 비즈니스의 바쁜 일상을 보내는 남녀를 형상화 한 것으로 현대인들의 주요 정장의 소재를 믹스하여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공생하고 있는 긍정적인 현대성을 표현하였다.

작품 ⑫는 부를 추구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현실성을 형상화 한 것으로 금색의 스팅글을 부의 기준으로 표현하여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지만 그럴수록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부의 자유로운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IV. 결론

본 연구는 한지 패션 소재 디자인 개발을 위한 실증적인 작업을 중심으로, 디자인 요소 중 조형적인 측면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요소인 수작업 소재 개발을 통해 기존의 원단을 탈피하여 예술적 가치 추구를 위한 연구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중심적으로 다루었던 한지를 중심으로 선행 연구 및 관련 보도 자료, 전문서 등을 통해 한지 소재 및 섬유 조형에 관한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프랑스 프리미에르비종과 미국 패션 산업계의 최대 정보 회사 WGSN(Worth Global Style Network)의 2009 F/W 패션 트렌드를 토대로 소재 개발을 위한 조형성을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실제 패션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12작품의 수작업을 통한 한지 소재 개발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이상의 연구 문제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고찰하였던 한지는 그 고유의 다양한 특성이 내재하고 있었으며, 이에 관한 긍정적인 특성으로 다음의 4가지인 수공예성, 장기 보존성, 보온성과 통기성, 흡수성, 다양성과 동양적 특성 등으로 고찰할 수 있었다.

둘째, 2009 F/W 패션 트렌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12작품의 한지 개발을 통해 예술 의상 소재로서의 다양한 시도와 함께 현대 패션계의 조형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소재 개발의 비주얼을 제시하였다.

디자인과 예술이라는 상반된 카테고리 안에서 시도되었던 본 연구가 섬유 조형으로써의 패션 소재 활용의 미적 세계를 고찰하는 선행연구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소재를 기초로 하여 아트 웨어 개발 및 창작 작품의 비주얼 제시를 후속연구로 제안한다.

주제어 : 패션 소재, 섬유조형, 한지, 수작업

참 고 문 헌

- 고성례 (2008) 전통한지 지화공예기법을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에 관한 연구 - 민화를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금광복 (2002) 색지공예. 서울, 대원사.
- 김요한 (2007) 예술의 정의. 서울, 서광사.
- 김춘일, 박남희 (1996) 조형의 기초와 분석. 서울, 미진사.
- 서영민 (2008) 망을 통한 정서작용의 섬유조형 표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번수 (1997) 현대섬유미술. 서울, 디자인하우스.
- 심준영, 김용숙 (2006) 전통 한지를 활용한 패션 액세서리 상품 개발 II - 관련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5(5), pp. 803-809.
- 이선원 (1998) 한지 조형의 미학 I, 한국문화연구 1, pp. 191-211.
- 안명숙 (2004) 전통복식공예. 서울, 교학연구사.
- 이연경 (2006) 섬유조형 표현에 의한 자아 정체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수정, 채선미 (2004) 한지의상에 나타난 소재표현기법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4), pp. 433-439.
- 이승철 (2002) 우리한지. 서울, 현암사.
- 임하연 (2005) 자크 라캉의 이론을 토대로 한 섬유조형 표현 - '향유'와 '승화된 대상 a'를 중심으로.

전선영 (2003) 디지털 오브제 0과1의 조형 표현 연구. 이화여
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경희, 노희경 (2005) 한지 문화상품 개발 연구 - 지승기법을
중심으로. 한국공예논총, 8(1), pp. 121-137.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

Db_View.

문화재청 홈페이지. 자료검색일 2007, 10. 3, 자료출처.

(2008. 8. 10 접수; 2008. 11. 17 채택)